

유아기의 가족 및 또래 상호작용이 학령기 아동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Famil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on in Early Childhood on Children's Sense of Community: The Mediated Effect of Self-Esteem

1차원고접수: 2024.07.10. 수정원고접수: 2024.08.28. 최종게재결정: 2024.09.21.

하지영¹ · 최혜선²

¹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²원광대학교 가족아동복지학과, 조교수 및 아동청소년연구센터, 소장

Ha, Ji Young¹

Choi, Hyesun²

¹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osong University

²Dept. of Family and Child Welfare, Wonkwang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아기의 가족 및 또래 상호작용 경험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PSKC)의 6차년도, 9차년도, 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사에 모두 참여한 가구 중 연구변인의 모든 문항에 응답한 977가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492명(50.4%), 여아 485명(49.6%)이었으며, 6차년도 기준 아동의 월령은 평균 62.5개월이었다. 변인들 간의 경로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유아기의 가족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은 각각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공동체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유아기의 가족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고학년 시기의 공동체 의식에 각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기에 가족 및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수록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고학년 시기에 공동체 의식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세계시민의 자질로서 강조되고 있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초기의 환경적 변인으로서 상호작용 경험과 개인적 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밝혀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공동체 의식, 가족 상호작용, 또래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종단연구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ongitudinal effect of family and peer interactions on children's sense of community and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Data from the 6th, 9th, and 11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used, and data from 977 households were analyzed. The gender of the children was 492 boys (50.4%) and 485 girls (49.6%), and the age of the children was 62.5 month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nalyzed to determine the paths between variables, and bootstrapping was performe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First, family and peer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directly influenced the sense of community in elementary school. Second, family and peer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sense of community in elementary school through the child's self-esteem. This study demonstrates the role of social interaction experience as an early environmental variable and self-esteem as a personal variable to cultivate a sense of community, which is emphasized as a quality of global citizenship.

Keywords sense of community, family interaction, peer interaction, self-esteem, longitudinal effe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을 익히

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습득하며,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서 공동체 의식이란 아동이 소속된 학교

* 본 논문은 2024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임.

Corresponding to 최혜선 (Choi, Hyesun)

원광대학교 가족아동복지학과, 조교수 및 아동청소년연구센터, 소장 (Dept. of Family and Child Welfare, Wonkwang University)

E-mail. hschoi20@wku.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나 학급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느끼는 소속감, 친밀감, 동질감, 가족 의식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한대동, 오경희, 2013). 초등학교 시기에 형성된 공동체 의식은 이후 성숙한 시민성을 갖고 사회참여 및 사회통합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핵심적인 요건이 된다(정수정, 김소은, 정익중, 2018). 특히 다양한 문화와 개인의 다양한 가치와 신념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배려와 협력의 태도를 지님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은 세계시민의 자질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시현, 2023; 양영미, 김진석, 2015). 최근 공동체의 개념은 그 범위가 지구촌으로 확장되고 있고,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평등과 정의, 사회 기여, 책임 의식 등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보민, 박인전, 2016).

그러나 현대사회의 핵가족화와 자녀 수의 감소,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개인주의와 경쟁구조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학습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강가영, 2014; 김보민, 박인전, 2016). UNESCO(2014)에서는 전 인류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노력하는 학습자를 양성하는 변혁적 교육으로서의 세계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22.12.22)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간상에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강조하면서 공동체 의식 강화를 주요 개정 방향에 포함하였다. 이처럼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동체 역량을 지니는 것이 요구되며,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에서 아동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은 가족과 친구,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정서적 유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연은모, 최효식, 2021; 정지나, 2023; Prati, Tomasetto, & Cicognani,

2021; Villarroel, Alfaro, Reyes, Carrillo, & Ditzel, 2022). 즉 아동의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집단의 일원으로서 유대감과 소속감, 친밀감, 영향력과 같은 심리적 욕구가 충족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Nowell & Boyd, 2010). 또한 공동체 의식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미경, 오현주, 2016; 한은수, 2022). 공동체 의식이 높은 아동은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래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학교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학교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이 입증된 바 있다(김영춘, 2014). 이와 같이 공동체 의식은 아동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강조되고 있으므로 아동의 공동체 의식 형성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 의식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므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중심으로 종단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은혜, 최려나, 노충래, 2020; 이화진, 임지영, 2024; Vieno, Perkins, Smith, & Santinello, 2005). 우선 가정은 아동이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라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의 밑바탕이 형성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김지윤, 이은진, 하승혁, 홍세희, 2021; 문은식, 문명화, 2021; 최혜선, 하지영, 2022)에서 유아기의 가족 상호작용,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초등학교 시기의 사회·정서적 발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발달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Parke, Burks, Carson, Neville과 Boyum(1994)은 세 가지 경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모는 자녀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함께 하는 파트너로서, 둘째, 자녀에게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상호작용 하는 방식을 가르침으로써, 마지막으로 자녀가 가족 외의 맥락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사회화 과정을 돕는다(Parke et al., 1994).

아동이 인생 초기부터 경험하는 가족 내의 상호작용이 이후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도 이러한 경 로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의 공동체 의식 관련 가정 환경 변인 을 입증한 연구들은 가족 상호작용보다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왔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동체 의식의 관련성 에 관한 연구(박진이, 2020; 신혜숙, 2015; 유난숙, 2015) 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공동체 의식에 대한 부모나 가 족 상호작용과의 관련성 또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살펴 본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가족이란 여러 구성 원이 각각의 하위체계를 이루면서 하나의 전체 체계로 작용하므로 부모의 양육 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전체 가 족의 역동을 살펴보는 것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경험 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윤 연정, 이미숙, 2007).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족 상호작용 과 공동체 의식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초 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부모-자녀 상호작 용 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 윤수경과 이윤희, 임소현, 김은영의 연구(2018), 중 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족관계의 친밀 성이 공동체 의식에 종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허영주의 연구(2019)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이러 한 선행연구들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하였 지만, 아동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부모, 또는 가족 관계의 영향력이 발휘됨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에 비추어볼 때 아동이 학령 전에 경험하는 가족 상호작용이 이후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유아기에 경험 하는 가족 상호작용은 유아가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하기 위한 원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아기의 가족 상호작용은 이후 공동체 의식의 발달 과 관련된 요소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된다. McMillan과 Chavis(1986)는 공동체 의식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소속감 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둘째, 구성원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느낌, 셋째, 공동체 내에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는 느낌, 넷째, 구성원들이 집단의 역사 와 장소, 시간, 경험을 공유하는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 어야 한다. 이에 근거해 볼 때, 생애 초기에 중요한 타 인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미 리 경험해 보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내면화하여 발달시 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유아기에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 적 정서를 공유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과 신뢰감을 갖 게 되며, 정서의 사회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신과 타인 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 Havighurst, Harley, & Prior, 2004). 또한 Sarason, Sarason과 Pierce(1990)는 생애 초기의 부모와 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자녀로 하여금 사랑받고 있으 며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 도록 함으로써 적응적인 발달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험은 유아가 가족 이외의 다른 맥락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 외에 초기의 또래관 계 역시 아동의 공동체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아기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가족 외의 타 인과 긍정적 정서를 공유하는 경험을 하고(Denham, McKinley, Couchoud, & Holt, 1990), 또래로부터 사회 ·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면서 우정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Chen & Jiang, 2002; Lindsey, 2002). 또한 유아교육기 관에서 또래와 다양한 형태의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는데, 또래와의 놀이는 상호작용 기술의 발 달에 중요한 사회적 맥락을 제공하며, 또래와 조화롭게 놀이를 하기 위해서 협동과 타협, 자기조절, 상호간의 지원 등의 사회적 기술이 요구된다(민미희, 2019; 임현 주, 2018; Goodacre, Fink, Ramchandani, & Gibson, 2023). 특히 Mathieson과 Banerjee(2010)는 아동이 유

아기의 또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이후 보다 확장되는 사회적 상호작용 맥락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부모와의 상호작용과는 달리 또래와의 수평적인 관계는 유아로 하여금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경험하도록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나타나는 사회적 역량의 개인적 차이는 이후 아동이 학교에서 아동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와 학교 적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의 또래 상호작용이 학령기의 공동체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유아기 또래 상호작용의 종단적인 효과에 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유아기의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 경험은 초등학교 입학 후 행복감(정슬기, 2023), 또래적응(이희정, 2018), 학교적응(허은하, 김상림, 2021)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Coolahan, Fantuzzo, Mendez와 McDermott의 연구(2000)에서는 유아기에 또래와 긍정적인 놀이 상호작용을 한 아동은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에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유아기에 부정적인 또래 놀이 상호작용을 한 아동은 이후 초등학교에서 주의력이 부족하고, 수동적이며, 동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의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 경험이 초등학교 진학 후 교실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유아기의 또래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래와 상호작용 시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과의 협력, 배려, 공동의 목표 달성과 같은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의 요소를 미리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에 경험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이후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종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태은, 2023; 양영미, 김

진석, 2015). 자아존중감이란 스스로에 대해 유능하고 가치있다고 여기는 신념과 태도를 의미하는데(Coopersmith, 1967; Cordell, 1999), 인생 초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사회관계를 비롯한 적응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rth & Robins, 2014). 특히 유아기에 비해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아동은 사회인지 과정이 발달하면서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평가되는지 추론하는 능력이 보다 향상되므로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Harter, 2006).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시간이 경과한 이후 공동체 의식에 종단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스스로에 대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할수록, 주변에 대한 수용과 배려가 높아지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긍정적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숙, 2019; 정수정 등, 2018; 최정현, 2019).

이와 같은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즉 유아기에 경험한 긍정적인 가족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은 이후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최은정, 김금주, 2020; 최혜선, 하지영, 2022)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이 경험한 부모의 애정,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으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종단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효식, 연은모, 2022; Harris et al., 2017). 또한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갈등이나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능감을 갖게 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게 된다(제희선, 이강훈, 2019; Klima & Repetti, 2008). 유아기의 부모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해주는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성 측정 이론(sociometer theory)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인정

받고 있다고 여기면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게 된다(Leary, 2004, 2005). 또한 애착이론에 근거해 보더라도 생애 초기부터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유대감을 형성한 아동은 이후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스스로에 대해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신념을 내면화하게 된다(Sroufe, 2002; Thompson, 2006). 이러한 이론들에 근거해 볼 때 유아기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지지, 수용 경험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Harris & Orth,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의 가족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 경험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기의 사회적 관계와 초등학교 입학 이후 아동의 발달적 결과 간의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들 중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역할을 입증한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강선아와 김광용의 연구(2021)에서는 유아기의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여 어머니가 애정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고, 이는 초등학교 이후의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기에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적 유능감을 갖게 되면 아동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므로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최혜선, 2021; 허은하, 김상림, 2021)에 비추어 보면 유아기에 놀이를 통한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유아기에 중요한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발달하는 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유아기는 생애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점차 확장되어 가는 시기로 가족 상호작용과 더불어 유아교육기

관에서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아기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이 학령 초기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후 학교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함으로써 타인과의 유대감과 집단에의 소속감을 갖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회관계를 확장시키고, 학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과업에 직면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을 발달시켜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김영미, 2023).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청소년기로의 진입을 앞둔 시기로 사회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한편 이전에 비해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키는 것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유아기의 가족 상호작용 및 또래 상호작용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아동의 공동체 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유아기의 가족 상호작용 및 또래 상호작용이 고학년 시기 아동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6, 9, 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6차년도(Time 1, 유아) 자료에서 가족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을, 9차년도(Time 2, 초2) 자료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11차년도(Time 3, 초4) 자료에서 아동의 공동체 의식 변인을 선택하였다. 조사에 모두 참여한 가구 중 연구변인의 모든 문항에 응답한 977가구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 아동의 성별은 남아 492명(50.4%), 여아 485명(49.6%)이다. 6차년도 기준 아동의 평균 월령은 62.5개월이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6.1세이다.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38.8%(379명), 전문대 졸업(3년제 이하 기능대학) 28.1%(275명), 고등학교 졸업 26.7%(261명), 대학원 졸업 5.0%(49명), 중학교 졸업 0.4%(4명), 무응답 1.0%(9명)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경인권 29.4%(287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권 16.8%(164명), 대전/충청/강원권 14.5%(142명), 광주/전라권 14.5%(142명), 서울권 12.8%(125명), 대구/경북권 12.0%(117명)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은 ‘교육중단연구 2013년’에서 수정한 자료를 한국아동패널 연구팀이 사용한 척도를 측정하였다. 참여의식(2문항)과 타인배려(4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문항이다. 문항의 예는 “OO(이)는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OO이는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니?” 등이며, 아동이 응답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동체 의식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참여의식 .62, 타인배려 .80, 전체 .83이다.

2) 가족 상호작용

가족 상호작용은 David(2010)의 가족 상호작용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V; FACES IV)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팀이 사용한 척도를 측정하였다. 응집성(7문항)과 유연성(7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4문항이다. 문항의 예로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 “아이와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한다” 등이며,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 상호작용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응집성 .89, 유연성 .89, 전체 .92이다.

3) 또래 상호작용

또래 상호작용은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와 Sutton-Smith(1998)의 척도를 최혜영과 신혜영(2008)이 타당화한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팀이 검토하고 수정하여 사용한 또래 놀이 행동 척도를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놀이 상황에서 타인과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긍정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고자 하위요인 중 놀이 상호작용의 총 9문항만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친구와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말한다”, “놀이에서 순조롭고 융통성 있다” 등이며,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을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 상호작용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4이다.

4)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MCS(Millennium Cohort Study)에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10개 문항을 아동의 연령에 맞도록 축소하여 조사한 문항을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팀이 사용한 척도를 측정하였다. 총 5문항이며, 문항의 예로는 “나에게는 좋은 면이 많다”, “나는 스스로를 좋아한다” 등이며, 아동이 응답하였다.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5이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5.0 프로그램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연구변인들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수치와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잠재변인과 측정변인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변인들 간의 경로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다. 또한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00개의 표본을 95% 신뢰구간 내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변인들은 모두 왜도의 절댓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10미만이어야 한다는 정규성 가정(Kline, 2015)을 충족하여 변인의 분포가 정상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유아기 가족 상호작용과 학령기 공동체 의식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가족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중 응집성은 공동체 의식의 하위요인인 참여의식($r = .13, p < .001$)과 타인배려($r = .09, p < .01$)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유연성의 경우에도 참여의식($r = .11, p < .001$)과 타인배려($r = .07, p < .05$)와 각각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래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또래 상호작용은 공동체 의식의 하위요인 중 참여의식($r = .13, p < .0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유아기 가족 및 또래 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아동의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 가족 상호작용 및 또래 상호작용과 아동기 자아존중감의 상관을 살펴보면, 가족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응집성($r = .10, p < .01$)과 유연성($r = .08, p < .05$), 또래 상호작용($r = .11, p < .01$) 각각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유아기 가족 및 또래 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초등학교 2학년 시기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공동체 하위요인인 참여의식($r = .20, p < .001$)과 타인배려($r = .21, p < .001$)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 초등학교 2학년 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4학년 시기 아동의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

표 1. 가족 상호작용, 또래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및 공동체 의식 간의 상관관계

($N = 977$)

변인	1	2	3	4	5	6
가족 상호작용(T1)						
1. 응집성	-					
2. 유연성	.83***	-				
또래 상호작용(T1)						
3. 또래 상호작용	.04	.04	-			
자아존중감(T2)						
4. 자아존중감	.10**	.08*	.11**	-		
공동체 의식(T3)						
5. 참여의식	.13***	.11***	.13***	.20***	-	
6. 타인배려	.09**	.07*	.04	.21***	.60***	-
<i>M</i>	3.98	3.60	3.08	3.46	3.91	3.83
<i>SD</i>	0.56	0.57	0.39	0.44	0.76	0.67
왜도	-1.08	-.59	-.57	-.88	-.34	-.18
첨도	3.70	1.73	1.22	.71	-.20	-.12

* $p < .05$, ** $p < .01$, *** $p < .001$.

2. 유아기 가족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1)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분석에 앞서 유아기 가족 상호작용과 아동기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는 요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는 적합도 지수는 $\chi^2 = 1.053(df = 1, p > .05)$, $\chi^2/df = 1.053$, NFI = .999, CFI = 1.00, RMSEA = .007(90% CI [.000 ~ .085])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χ^2/df 는 3보다 작고 NFI와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되며, RMSEA는 .05 이하로 적합하고 간주된다(Browne & Cudeck, 1993; Kline, 2015). NFI와 CFI는 .90 이상, RMSEA는 .05이하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의 절댓값은 .65 ~ .97로 모두 .40 이상이며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각 하위요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구조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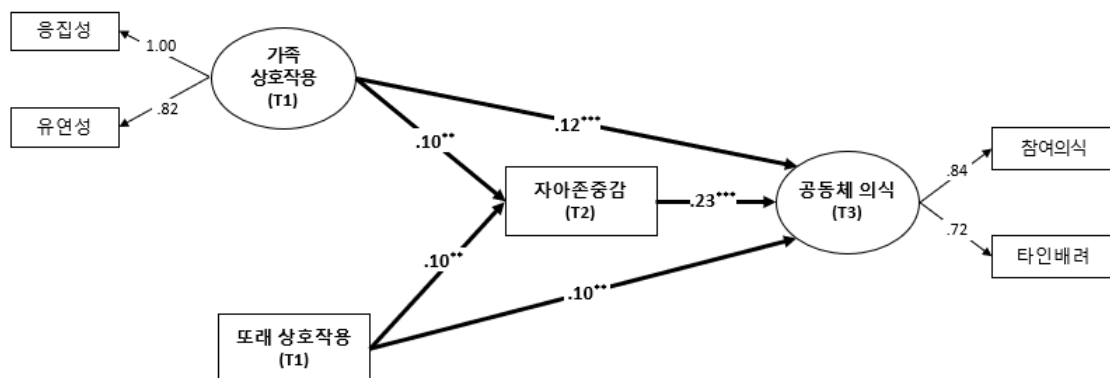
유아기 가족 및 또래 상호작용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 모델 적합도는 적합도 지수 $\chi^2 = 13.067(df = 6, p > .05)$, $\chi^2/df = 2.178$, NFI = .992, CFI = .930, RMSEA = .035(90% CI [.006 ~ .061])로 나타나, χ^2/df 는 3보다 작고 NFI와 CFI는 .90 이상, RMSEA는 .05 이하면 적합하다는 기준(Browne & Cudeck, 1993; Kline, 2015)에 근거하여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결과는 표 2와 그림 1과 같다. 유아기 가족 상호작용($\beta = .12, p < .001$)과 또래 상호작용($\beta = .10, p < .01$)은 아동의 공동체 의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기의 가족 및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아동의 공동체 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기 가족 상호작용($\beta = .10, p < .01$)과 또래 상호작용($\beta = .10, p < .01$)은 각각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공동체 의식에 정적으로 유

표 2. 경로계수

(N = 977)

경로	B	β	S.E.	C.R.
가족 상호작용(T1) → 자아존중감(T2)	.09	.10	.03	3.10**
또래 상호작용(T1) → 자아존중감(T2)	.11	.10	.04	3.20**
가족 상호작용(T1) → 공동체 의식(T3)	.16	.12	.05	3.30***
또래 상호작용(T1) → 공동체 의식(T3)	.16	.10	.06	2.80**
자아존중감(T2) → 공동체 의식(T3)	.34	.23	.05	6.30***

** $p < .01$, *** $p < .001$.



** $p < .01$, *** $p < .001$.

그림 1. 유아기 가족 및 또래 상호작용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표 3. 간접효과의 유의성

(N = 977)

경로	B	95%	
		LLCI	ULCI
가족 상호작용(T1) → 자아존중감(T2) → 공동체 의식(T3)	.02**	.01	.04
또래 상호작용(T1) → 자아존중감(T2) → 공동체 의식(T3)	.02**	.01	.04

** $p < .01$.

의한 영향($\beta = .23,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기에 가족 및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아동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유아기 가족 및 또래 상호작용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5,000개의 표본을 95% 신뢰구간 내에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유아기 가족 상호작용($B = .02$, 95% CI [.005 ~ .040], $p < .01$)과 또래 상호작용($B = .02$, 95% CI [.007 ~ .042], $p < .01$)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표 3 참조). 즉 유아기에 가족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거나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초등학교 2학년 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4학년 시기 아동의 공동체 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공동체 의식의 형성 과정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유아기의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의 긍정적인 가족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공동체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의 타인과의 적절한 상호작용 경험은 아동이 사회적 기술과 태도를 발달시킴으로써 사회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선행연구(김언경, 박신영, 김미애, 2021)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생애 초기의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은 집단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단 내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른 시기부터 경험하는 가족 내 건강한 상호작용은 아동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의 적절한 모델이 되며, 아동이 타인에게 수용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본 연구에서 가족 상호작용은 가족 구성원 간의 응집성과 유연성이 얼마나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가로 측정되었으므로 긍정적인 가족 상호작용을 경험한 유아는 가족 구성원들과 감정적인 결합을 경험하고,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 경험은 이후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온화하고 지지적인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역할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수용되고 존중받는 경험, 문제 상황을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경험, 규칙을 준수하고 타협하는 경험 등은 이후 자녀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연은모, 최효식, 2021). 생애 초기부터 경험하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안정된 애착관계로서 이후 사회적 관계 발달의 초석을 이루며(Sarason et al., 1990), 사회화 과정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후 가족 외의 맥락에서도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Parke et al., 1994).

한편, 유아기에는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기의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전반인 환경에 잘 적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대현, 지성애, 2006). 유아에게 있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가족 상호작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유의 친밀감 이외의 경험을 제공한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주로 놀이 상황에서 일어나는데, 놀이 중에 또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접하게 되고, 이는 유아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인식할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놀이 중 갈등 상황을 해결하거나 협동 능력을 학습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Coolahan et al., 2000). 이러한 경험은 아동이 집단 내에서 유대감을 갖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유아기의 가족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공동체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에 가족과 균형 있는 응집과 유연한 상호작용을 경험한 아동은 성장하면서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을 갖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지윤 등, 2021; 최은정, 김금주, 2020; 최혜선, 하지영, 2022)와 유사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긍정적인 가족 내 분위기는 유아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점차 확장되기 시작하는 유아기에 가족 외에 또래 등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면, 타인으로부터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사회성 측정 이론(Leary, 2004, 2005)에서는 사회관계에서 수용되거나 거부되는 경험 등을 통해 관계 내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대감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한다는 애착 이론(Sroufe, 2002; Thompson, 2006)에 근거해 볼 때 생애 초기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 경험의 중요

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아동이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통해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여러 가지 도전적인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지속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상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어 이후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게 된다(김유정, 박유경, 이금규, 2023; 정수정 등, 2018). 즉 높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집단 내에서 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cMillan과 Chavis(1986)는 공동체 의식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로 소속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느 느낌, 공동체 내에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는 느낌, 정서적 유대감을 제시하였다. 유아기의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과 이후 초등학교 입학 후 자신의 가치에 대해 갖게 되는 긍정적인 인식은 공동체 의식을 이루는 요소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아동의 공동체 의식의 발달은 생애 초기부터 경험한 사회적 관계와 그러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Gadaire, Henrich, & Finn-Stevenson, 2017).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공동체 의식은 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을 통해 학습된 산물이므로 인생 초기부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이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적 맥락인 가족 내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취학 전 시기부터 부모가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학 전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입은 아동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하지만, 정계숙, 2022; Bierman, McDoniel, & Loughlin-Presnal, 2019). 부모가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가족구성원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가족구성원들 간

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는 스스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부모는 자녀가 어린 시기부터 또래 집단 내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를 경험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들(권동택, 김현옥, 남미, 김지연, 2023; 정지나, 2023)이 수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전과 후 모두 아동의 공동체 의식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코로나19 이후가 이전보다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권동택 등, 2023). 이처럼 공동체 의식은 현재 아동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으로 이후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아동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동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부모 및 아동 대상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아동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서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로서 유아기의 상호작용 경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봄으로써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그러나 공동체 의식의 변화나 그 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모두 배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들이 각 시기마다 누적되어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환경적, 개인적 관련 요인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

까지 공동체 의식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박혜숙, 2019) 결과, 공동체 의식은 평균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나 그 변화율에는 개인차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공동체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그룹과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통해 공동체 의식은 항상성을 보이지만 개인차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학령기 아동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과 함께 학령기 아동의 이후 공동체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함께 분석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부터 2018년도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경험과 미래사회 요구되는 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았지만, 아동기의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보다 다양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유아기 가족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이 고학년 시기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저학년 시기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밝혔으나 직접효과에 비해 간접효과 크기가 작았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아동의 삶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아동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세계시민의 자질로서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고 있으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변인과 아동 개인 내적 변인의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취학 전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인 가족과 또래와의 상호작용 경험과 취학 후 자아존중감이 이후 공동체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가영 (2014). 학교생활적응이 아동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8, 81-110.
- 강선아, 김광용 (202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5(4), 7-29.
<https://doi.org/10.22590/ecee.2021.25.4.7>
- 교육부. (2022. 12. 22).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3459>에서 2024년 8월 25일 인출
- 권동택, 김현옥, 남미, 최지연 (2023). 코로나 19 전후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만족 영향 요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3), 843-854.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3.843>
- 김보민, 박인전 (2016). 아동의 봉사활동경험과 자기효능감, 공동체의식, 세계시민의식의 관계. *글로벌교육연구*, 8(4), 33-55.
<https://doi.org/10.19037/agse.8.4.02>
- 김시현 (2023). 초등학교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교육문화연구*, 29(5), 381-402.
<https://doi.org/10.24159/joec.2023.29.5.381>
- 김언경, 박신영, 김미애 (2021). 5세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학습성향의 매개효과 분석. *교육과학연구*, 52(3), 53-72.
<https://doi.org/10.15854/jes.2021.09.52.3.53>
- 김영미 (2023).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 및 영향요인 검증. *아동학회지*, 44(1), 57-68.
<https://doi.org/10.5723/kjcs.2023.44.1.57>
- 김영춘 (2014). 또래애착,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9), 321-331.
<https://doi.org/10.5392/JKCA.2014.14.09.32>
- 김유정, 박유경, 이금규 (2023). 부모효능감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30(4), 101-110.
<https://doi.org/10.15284/kjhd.2023.30.4.101>
- 김은혜, 최려나, 노충래 (2020).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 적응, 공동체 의식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청소년복지연구*, 22(4), 265-291.
<https://doi.org/10.19034/KAYW.2020.22.4.10>
- 김지윤, 이은진, 하승혁, 홍세희 (2021). 취학 전 타인과 상호작용이 초등학교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학교 적응의 매개효과와 가족 상호작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육아정책연구*, 15(3), 57-80.
<https://doi.org/10.5718/keep.2021.15.3.57>
- 김태은 (2023). 초등학교 6학년의 자아존중감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지지 및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0), 693-705.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10.693>
- 문은식, 문명화 (2021). 부모-유아 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 또래 놀이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과 아동기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연구*, 41(6), 261-283.
<https://doi.org/10.18023/kjece.2021.41.6.011>
- 민미희 (2019).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유능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간 다집단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3), 1-22.
<https://doi.org/10.22155/JFECE.26.3.1.22>
- 박미경, 오현주 (2016). 민주적 양육방식이 취업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249-270.
<https://doi.org/10.22251/jlcci.2016.16.12.249>
- 박진이 (2020).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인식하는 긍정적 양육태도, 교사 친밀성, 또래 공동체 의식, 성장신념의 구조적 관계 및 성별 간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1329-1345.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7.1329>
- 박혜숙 (2019). 공동체의식 변화양상과 개인, 가정, 학교특성이 아동·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5(1), 555-576.
<https://doi.org/10.24159/joec.2019.25.1.555>
- 신혜숙 (2015).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 공동체의식, 학교행복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 요인 탐색. *교육평가연구*, 28(1), 53-76.
- 양영미, 김진석 (2015).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7(4), 309-328.
<https://doi.org/10.19034/KAYW.2015.17.4.14>
- 연은모, 최효식 (2021). 가족건강성, 친구관계, 교사관계,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5), 43-55.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5.43>
- 유난숙 (2015). 중산층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방식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3), 319-329.
<https://doi.org/10.6115/fer.2015.025>
- 윤수경, 이윤희, 임소현, 김은영 (2018). 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9(2), 353-374.
<https://doi.org/10.15753/aje.2018.06.19.2.353>
- 윤연정, 이미숙 (2007).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105-122.
- 이화진, 임지영 (2024). 심리적 학교환경특성과 아동의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 아동의 또래애착의 중단매개효과. *Human Ecology Research*, 62(2), 249-259.
<https://doi.org/10.6115/her.2024.017>
- 이희정 (2018). 유아의 또래 놀이상호작용 중단적 변화궤적이 초등학교 1학년생의 또래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4(3), 387-407.
<https://doi.org/10.24159/joec.2018.24.3.387>
- 임현주 (2018). 유아의 자아존중감, 또래놀이 상호작용 군집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다변량분석. *유아교육연구*, 38(3), 215-236.
<https://doi.org/10.18023/kjece.2018.38.3.009>
- 정대현, 지성애 (2006).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유아-교사관계, 다중지능과 초등학교 적응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6(3), 201-221.
- 정수정, 김소은, 정익중 (201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초등학교 시기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9(6), 15-25.
<https://doi.org/10.5723/kjcs.2018.39.6.15>
- 정슬기 (2023).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기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유아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28(4), 253-277.
<https://doi.org/10.20437/KOAECE28-4-11>
- 정지나 (2023). 부모의 교육 참여와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32(5), 481-490.
<https://doi.org/10.5934/kjhe.2023.32.5.481>
- 제희선, 이강훈 (2019).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성별, 연령, 기질,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9(4), 31-60.
<https://doi.org/10.18023/kjece.2019.39.4.002>
- 최은정, 김금주 (2020). 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초등 1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7(2), 215-234.
<https://doi.org/10.22155/JFECE.27.2.215.233>
- 최정현 (201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 의식에 관한 중단적 융합연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9(12), 62-70.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12.062>
- 최혜선 (2021).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4), 1865-1880.
<https://doi.org/10.22143/HSS21.12.4.132>
- 최혜선, 하지영 (2022). 유아기 모-자녀 상호작용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행동문제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3(3), 275-288.
<https://doi.org/10.5723/kjcs.2022.43.3.275>
- 최혜영, 신혜영 (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 최효식, 연은모 (2022).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부모-자녀 상호작용,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 대한 중단연구: APIM 모형의 적용.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3), 183-193.
<https://doi.org/10.5762/KAIS.2022.23.3.183>
- 하지민, 정계숙 (2022).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 증진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행동 변화: 대상관계이론에 기초하여. *유아교육연구*, 42(6), 689-717.
<https://doi.org/10.18023/kjece.2022.42.6.029>
- 한대동, 오경희 (2013). 초등학교에서의 공동체적 수업실천과 공동체 의식이 학교폭력 자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3(4), 207-235.
<https://doi.org/10.32465/ksocio.2013.23.4.008>
- 한은수 (2022). 초등학교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 중독, 공동체 의식, 학교적응 간의 구조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9(3), 299-318.
<https://doi.org/10.21509/KJYS.2022.03.29.3.299>
- 허영주 (2019). 가족관계 친밀성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 봉사활동 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5(3), 429-452.
<https://doi.org/10.24159/joec.2019.25.3.429>
- 허은하, 김상립 (2021).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이 학령초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자아존중감 및 학업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30(4), 565-579.
<https://doi.org/10.5934/kjhe.2021.30.4.565>
- Bierman, K. L., McDoniel, M. E., & Loughlin-Presnal, J. E. (2019). How a preschool parent intervention produced later benefits: A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64, 101058.
<https://doi.org/10.1016/j.appdev.2019.101058>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11-135). Newbury Park, CA: Sage.
- Chen, Q., & Jiang, Y. (2002).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Chinese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3(2), 171-186.
https://doi.org/10.1207/s15566935eed1302_4
- Coolahan, K., Fantuzzo, J., Mendez, J., & McDermott, P. (2000). Preschool peer interactions and readiness to learn: Relationships between classroom peer play and learning behaviors and conduct. *Journal of Educational*

- Psychology*, 92(3), 458-465.
<https://doi.org/10.1037/0022-0663.92.3.458>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ordell, A. S. (1999). Self-esteem in children. In C. J. Carlock (Ed.), *Enhancing self-esteem* (pp. 287-376). London: Taylor and Francis.
- David, H. O. (2010). *FACES IV manual*. Minneapolis, MN: Life Innovations.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r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1), 65-86.
<https://doi.org/10.1023/A:1024426431247>
- Denham, S., McKinley, M., Couchoud, E., & Holt, R. (1990).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preschool peer ratings. *Child Development*, 61(4), 1145-1152.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P.,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 105-120.
[https://doi.org/10.1016/S0885-2006\(99\)80048-9](https://doi.org/10.1016/S0885-2006(99)80048-9)
- Gadaire, D. M., Henrich, C. C., & Finn-Stevenson, M. (2017).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7(7), 767-778.
<https://doi.org/10.1177/1049731516632592>
- Goodacre, E. J., Fink, E., Ramchandani, P., & Gibson, J. L. (2023). Building connections through play: Influences on children's connected talk with peer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1(3), 203-226.
<https://doi.org/10.1111/bjdp.12443>
- Harris, M. A., & Orth, U. (2020). The link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 relationships: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9(6), 1459-1477.
<https://doi.org/10.1037/pspp0000265>
- Harris, M. A., Donnellan, M. B., Guo, J., McAdams, D. P., Gamier-Villareal, M., & Trzesniewski, K. H. (2017). Parental co-construction of 5- to 13-year-olds' global self-esteem through reminiscing about past events. *Child Development*, 88(6), 1810-1822.
<https://doi.org/10.1111/cdev.12944>
- Harter, S. (2006).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In M. H. Kernis (Ed.), *Self-esteem issues and answers: A sourcebook of current perspectives* (pp. 144-150).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Havighurst, S. S., Harley, A., & Prior, M. (2004). Building preschool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A parenting program.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5(4), 423-448.
https://doi.org/10.1207/s15566935eed1504_5
- Klima, T., & Repetti, R. L. (2008). Children's peer relations and their psychological adjustment: Differences between close friendships and the larger peer group. *Merrill-Palmer Quarterly*, 54, 151-178.
<https://doi.org/10.1353/mpq.2008.0016>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eary, M. R. (2004). The sociometer, self-esteem, and the regulation of interpersonal behavior. In R. Baumeister & K. Vohs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pp. 373-391).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eary, M. R. (2005). Sociometer theory and the pursuit of relational value: Getting to the root of self-esteem.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6(1), 75-111.
<https://doi.org/10.1080/10463280540000007>
- Lindsey, E. W. (2002). Preschool children's friendships and peer acceptance: Links to social competence. *Child Study Journal*, 32(3), 145-156.
- Mathieson, K., & Banerjee, R. (2010). Pre-school peer play: The beginnings of social competence. *Educational and Child Psychology*, 27(1), 9-20.
<https://doi.org/10.53841/bpsecp.2010.27.1.9>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https://doi.org/10.1002/1520-6629\(198601\)14:1<3.0.CO;2-I](https://doi.org/10.1002/1520-6629(198601)14:1<3.0.CO;2-I)
- Nowell, B., & Boyd, N. M. (2010). Viewing community as responsibility as well as resource: Deconstructing the theoretical roots of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7), 828-841.
<https://doi.org/10.1002/jcop.20398>
- Orth, U., & Robins, R. W. (2014).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81-387.
<https://doi.org/10.1177/0963721414547414>
- Parke, R. D., Burks, V. M., Carson, J. L., Neville, B., & Boyum, L. A. (1994). Family-peer relationships: A tripartite model. In R. D. Parke & S. G. Kellam (Eds.), *Exploring family relationships with other social contexts* (pp. 115-146).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rati, G., Tomasetto, C., & Cicognani, E. (2021). Developmental relations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well-being among early adolescents: A latent change score model-

- ling study.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31(2), 142-154.
<https://doi.org/10.1002/casp.249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Sarason, I. G., Sarason, B. R., & Pierce, G. R. (1990). Social support: The search for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1), 133-147.
<https://doi.org/10.1521/jscp.1990.9.1.133>
- Sroufe, L. A. (2002). From infant attachment to promotion of adolescent autonomy: Prospective, longitudinal data on the role of parents in development. In J. G. Borkowski, S. L. Ramey, & M. Bristol-Power (Eds.), *Parenting and the child's world: Influences on academic, intellectual,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pp. 187-202). Mahwah, NJ: Erlbaum Publishers.
- Thompson, R. (2006).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 Social understanding, relationships, self, conscience. In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3rd ed., pp. 24-98). New York, NY: Wiley.
- UNESCO. (2014).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Paris: UNESCO.
- Vieno, A., Perkins, D. D., Smith, T. M., & Santinello, M. (2005). Democratic school climate and sense of community in school: A multileve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3-4), 327-341.
<https://doi.org/10.1007/s10464-005-8629-8>
- Villarroel, A., Alfaro, J., Reyes, F., Carrillo, G., & Ditzel, L. (2022). A sense of community at school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of Chilean studen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0(5), 2130-2143.
<https://doi.org/10.1002/jcop.22759>